



## 音響心理學 분야에도 관심들려야

### 잘살수록 쾌적한 音響空間 필요성 부각

『音響學이란 소리에 관한 학문으로 소리의 발생에서부터 조절, 전파 그리고 소리에 대한 人間의 반응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음향학은 물리·화학등 자연과학분야는 물론 언어학, 심리학등 인문·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야의 학문이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기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韓國音響學會 安秀桔회장(서울대 전자공학과 교수)은 음향학은 음향의 기본적인 물리특성을 연구하는 물리음향분야를 비롯 초음파, 수중음향, 전기음향, 건축음향, 소음·진동, 음성·신호처리, 청각, 음향심리, 음향화학, 음향재료, 음향표준·계측분야등 관련 연구범위가 매우 다양한 綜合科學의 성격을 띤 학문분야라고 소개한다.

安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음향학에 관한 연구는 81년 음향학회가 설립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지만 대학에 음향관련학과가 없어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힌다.

특히 소음·진동분야나 음향심리학분야는 쾌적한 환경을



安秀桔회장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클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음향심리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선진외국의 젊은이들은 자동차 에어컨의 필요성을 Audio를 제대로 청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는 선진복지국가일수록 개인의 쾌적한 음향공간의 필요성이 그 만큼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安회장은 소음·진동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경우 해저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해저해발에 필요한 초음파와 수중음향처리기술개발 등의 연구에도 관심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음향학은 관련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고루 발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가가치가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비의 투자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있어야겠습니다.』

安회장은 학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한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 음향학의 학문적·기술적발전을 촉진시키는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이와함께 최신 정보교환 및 첨단기술 습득을 위해 선진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회원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지방도시에서의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수행해 온 음향관련용어제정사업을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여 「음향학용어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사람과 소리와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이러한 소리를 연구하는 음향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할 작정입니다.』 <仁>